

추석 명절 성묘예배

기 원 인 도 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 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님은 지금 하나님의 품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님의 육신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성묘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 송 가 93장 다 같 이

1.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 이 주 예수
2.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3.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 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4.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 도 가족 중에서

성 경 봉 독 창세기 48장 21절 자녀 중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말 씬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인 도 자

이별이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늘 낯설고 버겁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족이라면 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두 손자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닮은 요셉을 볼 때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들에 대한 연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지냈습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떨어져 지냈던 아들과 재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야곱은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안타까운 이별을 앞두고 요셉과 손자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죽음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한 야곱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겨우 재회한 아들을 위해 야곱은 아버지로서 무엇이든 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요셉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 곁에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타향살이의 서러움에다가 가족까지 잃은 아픔을 견뎌야 할 요셉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비전과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마지막 기도는 아들을 비롯한 후손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의 묘소 앞에서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간 가족을 생각하면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하고 더 많이 효도하며 사랑하지 못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미안한 마음과 아쉬움을 기억하면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처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는 버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공동 기도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이 조상님의 육신이 묻혀 계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들을 다시금 추억할 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더욱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가족이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배려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가 436장 다 같 이

1.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2. 주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 산천도 초목도 옛 것이 되었고 조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4.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 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후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함께 살리라.

주 기도문 다 같 이

2025 한가위



성묘예배문

